

국내에너지價格 調整

- 動力資源部 -

1. 에너지價格 조정원칙

○국제油價 하락에 따른 이익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민생안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조정

- (1) 原油導入 單價는 86. 3 월도입분의 잠정실적치(18. 34 \$ / B)를 기준함.
- (2) 原油導入單價 하락분중
- 50%는 국내油價에 반영
- 50%는 基金·關稅로 유보(基金 25%, 關稅 25%)
- (3) 油種別 가격조정
-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 B - C 油 : 平均引下率보다 다소 많게 반영
• 나프타 : 최근 국제나프타價의 대폭 하락추세 반영
-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 나머지油種 : 油種間 적정 가격차가 유지되는 범위내에서 균분
- (4) 향후대책
86. 4 월 이후 導入原油 單價가 3 월분 실적단가보다 하락시 원칙적으로 기금등으로 흡수

(2) 환율 : 892. 50 → 885. 90 원 / \$ (86. 3. 24 현재)

(3) 原油關稅 : 5 → 12 %

(但 나프타소요原油는 1 % 적용)

(4) 石油事業基金 : 0. 50 → 1. 92 \$ / B

(5) 운임·보험료등 附帶費 原油價 하락분 반영

(6) 금 융 비

(7) 86. 1 ~ 3 월 精算分등 : 油價안하로 흡수

(2) 調整을 : 稅前工場渡 가격기준 : ▲ 10. 70 %
소비자 가격기준 : ▲ 10. 0 %

〈調整要因〉

• 原油價 하락	▲ 15.36 % (22.89 → 18.34 \$ / B)
• 換 率 "	▲ 0.70 % (892.5 → 885.9 원/\$)
• 關 稅 인상	4.19 % (5 → 12%)
• 基 金 "	4.35 % (0.5 → 1.92 \$ / B)
• 附帶費 하락	▲ 1.95 % (3.01 → 2.76 \$ / B)
• 金融費 "	▲ 0.38 % (491 → 390 원 / B)
• 86. 1 ~ 3 精算등	▲ 0.85 % (0 → ▲ 225 원 / B)
計	▲ 10.70 % (26,235 원/B → 23,429 원/B)

2. 石油類價格 조정

(1) 調整기준

(1) 原油導入單價 : 22. 89 → 18. 34 \$ / B

(3) 주요 油種조정율

	조 정 율 (%)		고 려 사 형
	稅前공정도	소비자	
B - C 油	▲ 11.75	▲ 11.13	•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지원

輕油	▲ 7.98	▲ 7.2	• 경유와 B-C油 적정가격 차이유지 소비자간 惠澤均霑 위해 均分 • 國際價와의 連動에 따라 최근의 國際 나프타價 下落趨勢 반영
燈油	▲ 8.95	▲ 8.1	
揮發油	▲ 8.45	▲ 7.9	
L.P.G	▲ 8.24	▲ 7.0	
나프타	▲ 20.3	▲ 20.3	
平均	▲ 10.70	▲ 10.0	

3. 調整時期

1986. 3. 29. 24:00시부터 시행

4. 石油安定基金 사용계획

(1) 급변 조치에 의한 基金 조성전망 : '86중 약 1,400억원

(2) 사용계획

○에너지 절약시설자금확대 : 400억원

○에너지節約施設 金 융기관 資金代替 등 : 1,000억원

計 : 1,400억원

5. 主要국의 石油製品 소비자가격 비교

(단위: \$ / B)

		韓國 (86.3)	日本 (86.1)	台灣 (86.3)	프랑스 (86.1)	西獨 (86.1)	美國 (86.2)
휘발유 (보통)	가격	102.3	111.4	85.3	105.8	81.1	47.0
	지수 (100)	100	109	83	103	79	46
燈油	가격	43.1	55.0	54.8	-	-	-
	지수 (100)	100	128	127			
輕油	가격	41.3	77.5	48.7	82.7	81.1	54.2
	지수 (100)	100	188	118	200	196	131
B-C油	가격	25.1	39.3	26.0	33.1	27.1	21.7
	지수 (100)	100	156	104	132	108	87
L P G (\$ / 톤)	가격	562.2	1,138	306.5	-	-	176.6
	지수 (100)	100	202	55			31
비고		886	197	39.15			
		원 / \$	¥ / \$	NT/\$			

註: ()는 종전가격 대비 지수임.

〈油種別 價格조정내역〉

(원 / ℓ, LPG 원 / kg)

油種	매출액구성비 (%)	稅 前			消 費 者		
		總 計	조 整	인하율 (%)	總 計	조 整	인하율 (%)
揮發油 (고급)	0.23	353.51	330.78	6.43	840	790	6.0
(보통)	5.76	262.71	239.98	8.65	620	570	8.1
(균용)	0.59	313.15	290.42	7.26	313.15	290.42	7.3
燈油	6.21	213.38	194.29	8.95	261	240.0	8.1
低硫黃輕油(0.4W%)	21.68	189.11	174.10	7.94	251	233.0	7.2
輕油	12.12	186.42	171.41	8.05	248	230.0	7.3
低硫黃輕質重油(1.6W%)	0.21	175.10	157.83	9.86	200.53	181.53	9.5
輕質重油(A)	0.95	171.18	155.94	8.90	196.21	179.45	8.5
低硫黃重油(1.6W%)	0.15	156.33	140.15	10.35	180.07	162.27	9.9
重油(B)	0.42	151.50	136.02	10.22	174.76	157.73	9.8
低硫黃B-C油(1.6W%)	8.53	142.28	125.56	11.75	165.61	147.22	11.10
低硫黃B-C油(2.5W%)	0.04	139.77	123.35	11.75	153.75	135.69	11.8
B-C油	10.55	135.61	119.67	11.75	157.35	139.81	11.2
아스팔트	1.88	179.31	159.59	11.0	197.24	175.55	11.0
프로판 (일반용)	0.81	374.27	342.86	8.39	618.0	580.0	6.2
(도시가스)		244.29	221.09	9.50	295.59	267.52	9.5
부탄 (일반용)	3.41	372.85	342.27	8.20	513.0	476.0	7.2
(도시가스)		243.35	210.25	13.60	294.46	254.41	13.6
나프타	9.73	124.29	99.07	20.29	136.72	108.98	20.3

6. 油價인하에 따른 부문별 부담경감액 추정

(1) 수송부문의 부담경감액

〈고속버스〉

금번 輕油價 인하(▲7.2%)에 따라 輕油가 고속버스원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16.4%이므로 1.2% 비용경감요인이 발생하며, 실제 하루 660km를 주행할 경우 경유 240ℓ가 사용되므로 월 129,600원의 부담이 줄어 듦.

$$(240\ell / \text{일} \times 18\text{원} / \ell \times 30\text{일} = 129,600 \text{ 원} / \text{월})$$

〈시내버스〉

輕油가 시내버스原價에 차지하는 비중이 18.0%로 부담경감요인은 1.3%이며, 일일 130ℓ 사용시(약 350km 주행) 월 70,200원의 부담이 줄어 듦.

$$(130\ell / \text{일} \times 18\text{원} / \ell \times 30\text{일} = 70,200 \text{ 원} / \text{월})$$

〈철 도〉

輕油가 디젤기관차에 차지하는 비중이 9.98%로 부담경감요인은 0.7%이며, 기관차 1대가 일일 3Kℓ 사용시 월 1,620,000원의 부담이 줄어 듦.

〈LPG 영업용 택시〉

금번 LPG 가격인하(▲7.2%)에 따라 LPG가 택시에 차지하는 비중이 17.3%로 1.3% 경감요인이 발생하며, 택시 1대가 일일 476km 운행시 월 30,540원의 부담이 줄어 듦.

$$(27.513\text{kg} / \text{일} \times 37\text{원kg} / 30\text{일} / \text{월} = 30,540 \text{ 원} / \text{월})$$

〈자가용 승용차〉

보통휘발유를 하루 10ℓ 사용시(약 100km주행) 월 15,000원의 부담이 줄어 듦.

$$(10\ell \times 50\text{원} / \ell \times 30\text{일} / \text{월} = 15,000 \text{ 원} / \text{월})$$

〈선 박〉

B-C油 및 輕油가 선박에 차지하는 비중은 21.11%로서 금번 두 유종의 평균인하율이 8.9%이므로 부담경감요인은 1.9%임.

내항선박을 기준 100톤급이하 선박이 하루 480ℓ를

사용할 경우 월 244,600원 부담이 줄고 10,000톤급 선박이 하루 2,900ℓ를 사용할 경우에는 월 1,478,200원 부담이 줄게 됨.

(2) 난방비용의 부담경감액

〈중앙난방식 아파트〉

- 24평 기준시 동절기 월평균 난방비용이 6만원일 경우 약 6,620원의 부담이 경감되며,
- 32평 기준시 동절기 월평균 난방비용이 8만원일 경우는 약 8,860원의 부담이 경감됨.

〈일반주택〉

월 1드림의 저유황輕油를 사용하는 가정은 종전의 약 50,200원에서 46,600원으로 약 3,600원의 부담이 경감됨.

$$(200\ell / \text{월} \times 18\text{원} / \ell = 3,600 \text{ 원} / \text{월})$$

(3) 농업용 油類의 부담경감액

가. 농업용 유류의 연간 부담경감액

- 農協을 통하여 농민에게 공급되는 농업용 유류의 연간 총 부담 경감액은 약 76억원임.

	연간사용량	부담경감액(연간)
휘 발 유	22천Kℓ	500 백만원
灯 油	26 "	496 "
輕 油	437 "	6,559 "
計	485 "	7,555 "

나. 農業用 기계류를 월사용 할 경우

기계류	사용유종	월사용량(ℓ)	부담경감액(원)
경운기	輕 油	60ℓ	900 원
이앙기	휘 발 유	8ℓ	182 원
트랙터	경 유	226ℓ	3,392 원
콤바인	경 유	50ℓ	750 원
바인더	휘 발 유	10ℓ	227 원

(4) 어업용 油類 부담경감액

• 水協을 통하여 연근해 어민에게 공급되는 어업용 油類의 연간 총부담 경감액은 약 88억원임.

	연간사용량	부담경감액(연간)
輕 油	446 천Kℓ	6,695백만원
B-A 油	114 "	1,969 " (저유황)
B-B 油	10 "	162 " (저유황)
計	561 "	8,826 "

17.5 %로 금번 B-C 油가격 11.13% 인하에 따른 제조업의 원가절감효과(간접과급효과 제외)는 0.1~1.9 %에 달함.

업 종	직접투입비중 (%)	원가절감 (%)
섬 유	3.1	0.35
화학조미료	7.9	0.88
제 지	4.7	0.52
고 무	1.1	0.12
판 유 리	17.5	1.95
시 멘 트	4.0	0.45
비 철 금속	5.0	0.56
철 강	2.7	0.30
기 계	5.0	0.56

7. 금번 油價인하가 産業에 미치는 영향

○제조업의 총원가중 석유제품의 직접투입비중은 1~

□ 焦 點 □

印度, 現物原油 대량매입

소련과는 계약중지

印度國營石油會社(IOC)가 국제현물시장에서 原油를 대량으로 매입하고 있다.

同國은 최근 輸入量의 일개월 반분에 해당하는 150만 톤의 原油를 입찰구매하였는데 이것은 종전의 3배 이상의 규모이다. 주요 수입선인 소련과의 장기구매계약을 更新하지 않고, 국제현물시장에서 값싼 현물원유를 매입하려는 계산이다.

同國의 수입방침의 전환은 소련에 타격을 주는 한편, 中東產油原의 現物時價를 뒷받침해주는 역할이 되고 있다.

싱가포르의 石油트레이더에 따르면 印度의 입찰매입일은 4월 2일이다. 따라서 4월과 5월前半의 1개월半分으로 하루 24만배럴이 되는 셈이다.

印度는 종전까지 수개월에 1회의 꼴로 구매입찰을 실시해왔는데 규모는 40~50만톤정도의 규모였다. 이번에는 1회에 3배이상의 原油를 구매입찰에 붙이는데 금후에도 국제현물시장에서 대량의 거래가 계속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견해가 보다 유력해지고 있다.

최근의 원유가격 급락으로 同國의 주요 수입선이던 소련의 원유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졌다. 소련은 그래도 제

약 갱신을 권유하고 있으나, 여러 트레이더에 의하면 印度가 소련과의 계약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듯하다.

소련 뿐 아니라 값이 비싼 이라크등과의 장기계약물량도 취소할 생각으로 보인다. 印度政府는 최근의 원유가격이 대외수지를 개선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값싼 현물원유를 도입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이번의 대량구매입찰은 그같은 계획추진의 제 1탄으로 보이며, 금후에도 輸入原油의 과반수이상을 현물구매할 공산이 크다.

印度의 원유수요량은 하루 약 80만배럴이다. 산유량은 60만배럴정도에 그치며, 종전에는 약 10만배럴을 수출하고 30만배럴을 수입하는 정책을 펴왔었다.

값비싼 소련原油에 의한 東歐諸國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西歐뿐 아니라 印度도 구입량을 줄이게 되면, 소련에는 큰 타격이 될 것이다. 동시에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中東原油에게는 好材가 된다.

歐美原油가 크게 하락하는 속에서는 中東原油의 현물시가가 반등하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내림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